



쉬고 노는 '일상적 삶'에 대한 본격연구서 한국여가문화의 특성 단순오락으로 규정

—「여가의 사회학」 펴낸 김문겸씨

이 책 그 사람

TV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빈둥대거나 스포츠를 즐기는 등의 '노는' 일이 '돈이 되는' 노동만큼이나 중요하고 의미깊은 행위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돈이 되는' 노동이 어느 사회체제를 막론하고 생산성 향상이나 사회진보에 기여하는 '신성한' 활동으로 독려받은 반면 '노는' 일은 그저 소비를 낭거나 생산을 촉진시키는 데 다소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였을 뿐이다. P. 라파르그가 지적했듯 인간은 누구나 '게으름을 부릴 권리'가 있지만 게으름, 즉 놀거나 빈둥대는 따위의 일이 그 자체로 인정받기에 이른 것은 세계적으로도 60년대 이후에 들어서다.

우리사회의 경우, 요즈음에 들어 이에 대한 관심이 연구의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데, 보드리야르, 르페브르 등 60년대 서구사회를 풍미했던 거장들의 문화이론이 최근 붓물을 이루다시피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나라마다 똑같은 임노동자라 하더라도 여가를 구성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즐기는 '음주문화'라도 그 양태에 따라 담보해내는 사회적 의의는 크게 차이나게 마련이어서 우리는 우리의식 분석들과 여가양식의 변천사를 앞서 마련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가생활이라는 영역은 한편으로는 혁명의 서곡이 울려 퍼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의 혁명이 실패하는 질곡이 되기도 한다"며 일상성의 중요성을 명쾌하게 요약해버리는 사회학자 김문겸(38·부산대 강사)씨는 이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시절 일찌감치 이에 눈뜨고 10여년간에 걸쳐 연구해와 최근 「여가의 사회학」(한울)이란 책을 펴내 외국이론서가 판을 치는 가운데서 신선한 화제를 낳은 인물이다.

사실, 구체적인 민중의 '일상적 삶'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것이 "현한국 사회과학계의 한계"라는 지적은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하기 쉬운 말이지 강의실 밖에서는 연일 돌맹이가 날고 연구실 안에서는 치열한 이념논쟁이 밤낮없이 벌어지던, 그것만이 사회학계의 최대과제로 인식돼던 70, 80년대의 분위기에서 민중들의 대수로울 것 없는 일상과 노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음이 이 책의 갈피에 스며있는 듯하다.

그의 박사학위논문(91년) 「한국인의 여가문화-노동과 여가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단행본의 체제에 맞게 손질하고 얼추 절반 가량을 새로운 내용으로 보충한 이 책은 현대 한국인의 여가양식과 한국 여가문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주된 요인들, 그리고 한국여가 문화의 중요한 특징 및 문제점과 전망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책이 학위논문의 장점을 십분 발휘한 점은 각 기관에서 조사한 '문화행사참여도', '직업별 취미생활' '직업별 행락산책' 등 각종의 통계자료를 풍부히 수록, 수치만으로도 그 양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 점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여가형태가 '고스톱' '음주' '섹스' 등 지적·심미적 훈련에 필요치 않는 '단순오락적 성격'이 주를 이루는 것은 생존의 문제에 삶의 에너지를 소진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적합한(?) 놀이라는 그의 이색 주장이 눈길을 끈다.

—정혜옥 기자



남성성의 열등함 파헤치는 이색 남성론 인간본성에 뿌리박은 성차별 실상 규명

—「XY : 남성의 본질에 대하여」 옮긴 최석씨

이 책 그 사람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보바르의 말을 뒤집어 해석하면 "남성 또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정의도 가능할 것이다. 일찍이 미국의 여성 해방운동단체인 SCUM(남성을 단죄하는 모임)이 "남자는 잘못 만들어진 여자"라고 지적한 말도 이러한 맥락에서 받아들인다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남성성의 위기는 문화적으로 높은 과고를 일으키며 서구사회에 던져졌다. 서구에서는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친 남성성의 위기를 맞이했다. 그 첫번째는 17세기경 귀부인들에 의해 주도되던 살롱문학의 번성이었고, 그 두번째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권운동.

최근 최석씨(38, 외대 불문학 강사)에 의해 번역 출판된 엘리자베트 바텐데의 「XY : 남성의 본질에 대하여」(민맥)는 사회학, 정신분석학, 역사학, 문화론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잘못 만들어진' 남성을 재조명해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모두 '남성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지만 표피를 헤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여권신장의 한 형태가 자리잡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다분히 남성성 저하의 논리도 볼 수 있다. 최석씨는 다음과 같이 이 책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권에 대해서는 '여성의 지위를 올려달라'는 관점에서만 이야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차별의 문제는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부권사회에서의 남성의식구조를 밝혀내고 동시에 '남성의 지위를 여성의 수준으로

내려보자'는 의도로 씌어진 듯합니다."

남성성의 지위 격하를 위해 제일 처음으로 제시되는 자료는 Y라는 염색체의 불안정성이다. 남성은 그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열등성을 감추기 위해 여러가지 사회구조를 고쳐나갔다. 그 단적인 증거가 세계 각 민족에서 행하고 있는 성인 의식. 저자는 성인 의식이 열등한 남성성을 복원시키기 위한 남성세계의 인간힘으로 보고 있다. 이 책이 다른 책과 유별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동성애에 관한 저자의 견해일 것이다.

"바텐데가 말하는 동성애는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동성애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도덕적 관념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봐야지요."

즉 동성에 행위가 남성속에서 여성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조화로운 남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 지적하고 있다. 냉혹한 남성이나 무기력한 남성이 아닌 조화로운 남성으로의 성장은 남성 자신에게나 성차별이 없는 사회로의 전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인간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책을 번역하면서 우리 현실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부모의 과보호로 의지력이 부족한 마마보이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가부장적 권위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인간형은 결코 조화로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성, 그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성과 함께 살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한 남자라는 존재에게도 물어봐야 할 것이다. — 이성수 기자



‘따뜻한 서정시’로 완성하는 쓸쓸한 풍경 역설의 힘에 의해 내면화된 고통의 표현

— 「당나귀의 꿈」 펴낸 권대웅씨

이 책 그 사람

쓸쓸함이나 슬픔, 삶의 고단함 등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의 정조다. 그런 만큼 이들이 불러일으키는 갖가지

상념들은 독자 개인의 체험과 맞물리면서 어느 시 한 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상승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그러나, 이 존재론적인 정조들은 자칫 그것이 갖는 ‘무게’로 인해 시를 읽는 한때나마 깊은 나락으로 내려서는 느낌을 갖게 할 수도 있다.

권대웅씨(31)의 첫시집 「당나귀의 꿈」(민음사)은 이런 의미에서 ‘따뜻한 서정시’라 할 만하다. 표면적으로 이 한편의 시집에는 “내 산책의 맨 끝에 있는 집”이 바로 “더 이상 물려주지 말아야 할” 적산가옥뿐인 현실이나, “길을 헤매다 머리카락이 세었다”는 지나온 삶에 대한 회억, 그리고 “잠 속에 깊은 잠 더 많은 잠”을 자는 화석 같은 시인의 모습이 편편에 박혀 있다. 여기에 하늘과 구름과 빈집과 흑백사진 등이 자아내는 말 그대로의 ‘적막함’까지 더해져 더할 나위 없는 쓸쓸한 풍경이 완성된다.

예의 ‘따뜻함’은 이러한 풍경을 한동안 곰삭이고 난 뒤,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이 온기의 연원은 시인의 쓸쓸함에 세상을 향한 분노나 적대감이 배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상실과 절망에서 화해로 건너뛰는 상투적인 과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의 시는 쓸쓸함의 풍경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따라서 읽는 이는 감정의 흔들림 없이 여리고 착한 한 사람의 내면과 만나게 되고, 동병상련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시만큼은 따뜻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는 그는, 88년 데뷔 이래 비교적 늦게

첫시집을 내기까지 자신의 시세계가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설혹 달라진다고 해도 형식에 변화를 주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다양한 경향의 시들이 선보이고 있는 작금의 시단에서 ‘노래’로서의 시와 ‘정서적 카타르시스’로서의 시의 고유한 기능을 애써 지켜내고 싶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이러한 생각은 고교시절 문예반 선배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얻어 맞으며 T.S. 엘리엇의 “사월은 잔인한 달/죽은 땅에서 라일락은 피고…”를 암송할 때부터 싹트다고 웃어 넘기는 그는, 그 문청시절의 엄격했던 습작이 지금까지도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시집해설을 통해 그의 시의 적막함을 분석하면서 “소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평면적”이라 평하면서도 “그럴수록 은밀하게 숨겨진 적막은 역설의 힘에 의해 내면화된 고통의 표현”이라고 읽어내는 평론가 정한용씨—그는 권대웅씨가 참여하고 있는 동인 ‘시운동’의 선배이기도 하다—는 이례적으로 자신의 시읽기 체험을 고백하면서 “나로 하여금 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작품”을 인용하고 있다. 비가 오면 온천지가 오텀색으로 변하는 것 같다는 인도의 한 지역을 연상하며 쓴 시 「산티케탄에서 울다」가 그것.

“산티케탄/땅 깊은 하늘의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나그네의 발길을 묶는 곳/머려야 할 것들이 노래로 터져 나와/아픔과 용서와 눈물이 섞여 뒤범벅이 된/비가 내린다”

상처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이든 한 줄의 노래(시)로 터져나오므로써, 그 과정에서 ‘용서’를 허락함으로써, 그의 시는 어둡기 보다는 따뜻함이 보다. — 정소연 기자



불교미술의 정화 ‘만다라’의 대중적 안내서 신라화엄의 만다라적 성격 등 새로 밝혀내

— 「만다라」 펴낸 홍윤식 교수

이 책 그 사람

김성동씨의 소설 혹은 티벳을 상징하는 불화 정도에 머무는 일반인들의 ‘만다라’에 대한 상식의 폭을

넓혀줄 만한 대중적인 소개서 「만다라」(대원사, 빛깔있는 책들 135)가 동국대 역사교육과 홍윤식교수(58)에 의해 최근 출판됐다.

「고려불화의 연구」 「한국의 불교미술」 「불화」 등 이 방면 저서를 줄곧 펴냈던 그에게 이 책은, 그같은 연구노정의 소산물 가운데 하나로, 원래 한국사를 전공했던 홍윤식 교수가 불화에 빠져든 것은, 국악에 뿌리박힌 불교문화의 도도함을 발견하고서부터. 이미 사찰에서조차 천대시해 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있던 범패나 나비춤과 같은 불교의식무용을 발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데 공헌하며, “한 개인의 관심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했다”는 그다. 이후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리가 신앙의 대상인 불상과 불화에까지 연결됐고, 특히 신앙의 대상임과 동시에 신앙의 본질을 전달하는 불화에 유독 끌리게 된 것이다.

“통일적 다신교인 불교의 특성이 질게 배인 만다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책을 펴냈어요. 공간성을 갖는 회화란 점에서 모든 불화는 만다라로 불릴 수 있지만, 복수성과 중심성이 기하학적 무늬와 색의 조화로 완성된 것이 협의의 만다라인 셈이죠.”

감상의 대상이 아닌 신앙의 대상이어서 여타의 미술품과 달리 접근하기 어려운 만다라에 대한 바른 해석과 종류, 구조와 표현방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만다라 사상과

만다라의 현대적 의미까지를 큰 열개로 두루 살피고 있는 이 책에서 홍윤식교수는 만다라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한다. 즉 엄격한 신분제인 카스트제도를 거부한 불교가 대승불교로 전환되면서 일반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재래신앙을 받아들여 密敎가 탄생됐고, 인도 다신교의 흡수로 이뤄진 만다라는 그래서 상호상관관계의 조화로운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밀교가 교리적 배경이 되는 본격적인 만다라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일본과 달리 밀교가 성행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그가, 이 책을 내기 위해 일본을 들락거린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홍윤식교수는 오대산 신앙의 만다라적 성격이라든가, 신라화엄 만다라의 조직과 의미, 그리고 신라사회와 만다라에 대한 진지한 연구결과도 이 책에 담은 노력을 보인다.

“천주교의 성찬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성찬이 하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다면, 불교에서의 공양은 더불어 존재하는 못생명과 함께 공생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바로 만다라가 공양의 미덕, 조화와 공존의 세계를 증명하는 겁니다.”

만다라의 현대적 의미를 인간이기주의에 의한 환경 파괴로 연장해 ‘조화’를 강조하는 그의 史觀은, “현대사회는 조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동양의 사상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현상을 반갑게 받아들이는 홍윤식교수는 앞으로 불교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문화에 끼친 영향과 미래의 모습을 분야별로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할 작정이다.

— 최태원 기자